

야생화 속의 풍경화전

국립수목원 전시실, 5월16일까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박종서)은 숲과 꽃을 주제로 한 '야생화 속의 풍경화전'을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개최한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자연 속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회화적 특성을 살려 표현하였으며,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생명활동을 지속시켜주는 원천인 산림은 변화에 따른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보여주는데, 자연에 내재된 창조적 열망은 미술작가들로 하여금 다양한 예

술적 영감을 불러일으켜 그 내적체함을 예술로 표현하게 한다.

이번 전시회는 자연환경 기획전시로 '야생화 속의 풍경화'라는 주제로 꽃과 자연을 섬세하고 생기있게 표현한 수채화 및 유화작품 35점이 선보이며, 미술과 자연과의 교감으로 파생되는 환경예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자연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수목원 입장객에 한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박종서)은 숲과 꽃을 주제로 한 '야생화 속의 풍경화전'을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개최한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임원회의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은 지난 10일 제22차 임원회의를 갖고 2008년 춘계수련대회를 갖기로 했다.

주부명예기자단은 5월13일 춘계수련대회를 강화도에서 갖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사작성 및 제보의 관한 건, 독자 확보 및 광고수주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박혜자 주부명예기자단장은 인사말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은 지난 10일 제22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보면서 실세가 뭔지 보여준 것 같다"면서 "새롭게 당선된 사람이 우리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대회의실 바닥 리모델링 하기로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제76차 정기회의서 의결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환)는 4월18일 오후7시 포천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제7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대회의실 바닥 리모델링 공사와 5월16일 제77차 정기회의의 결단합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2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박승환 운영위원장은 "올들어 2월에는 예산안 통과, 3월에는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불우이웃돕기 참가의 건등을 처리하느라 수고하셨다"며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회의를 간단히 형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포천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며 "원가폭등, 유가상승 등으로 기업환경이 아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밝은 모습만큼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포천신문이 정론지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단합대회를 오는 5월16일 산정호수 프라임펜션리조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이날 제77차 정기회의 및 단합대회 겸 야외회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유병호 교관이 대회의실 카페



포천신문 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포천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제7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트가 오래돼 건강에 좋지 않아 타일을 제정하기로 하고 시공비는 운영위원회 예산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문체길 위원은 바닥만 하게 되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전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먼저 바닥부터 하고 나중에 의논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포천신문 구독 및 광고의 건은 광고효과가 기대되는 업종의 경우는 정기적인 광고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며 구독신청서를 준비해 주변에 홍보하고 구독자 확보에 나서자고 의결하기도 했다.

기타 안전토의에서 임대집 부총무는 "제18대 국회의원 후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보니 포천신문사의 위상이 더욱 높아진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며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포천시장 보궐선거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도 많은 운영위원들께서 참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시립어린이집 ⑦

관인어린이집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는 어린이 육성

엄마손 인형극 경기도 우수프로그램 인증



시립 어린이집 김경선(44·사진) 원장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는 어린이'를 원인으로 삼아 예쁜반(3.4세 혼합연령), 다정반(5.6세 혼합연령), 다정반(6.7세 혼합연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밝고 맑으며 건강한 어린이,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며, 남을 사랑하는 어린이, 효와 예절을 중요시하는 어린이, 바른 인성을 가진 어린이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꿈과 사랑을 주는 보육으로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교육과 놀이공간을 마련하여 즐겁게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시립 어린이집 김경선(44·사진) 원장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는 어린이'를 원인으로 삼아 예쁜반(3.4세 혼합연령), 다정반(5.6세 혼합연령), 다정반(6.7세 혼합연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밝고 맑으며 건강한 어린이,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며, 남을 사랑하는 어린이, 효와 예절을 중요시하는 어린이, 바른 인성을 가진 어린이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과정에 따르고 영양, 건강,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엄마손 인형극회를 조직하여 지역특성상 문화적 체험이 이루어지기 힘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인형극회 조직의 목적은 영유아로 하여금 인형극을 통한 상상력, 언어표현력의 증진, 창의적 사고를 기르고 인형극 감상을 통해 예술경험을 하고, 공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두고 있다.

2004년8월13일 김경선 원장의 발의로 시작되어 2004년9월15일 첫 작품 '화가 난 사자아저씨'를 공연한 이후 '토끼의 지혜', '햇님달님', '산타할아버지의 선물', '혹부리 영감', '내대의 선물' 등 13개의 작품을 선보였다.

엄마손 인형극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김 원장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가장 많이 끌 수 있고 주의집중이 잘 되며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고 지식교육만이 아니

라, 느끼고 깨달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감동감화를 주며 그 감화가 생활교육이 되고 있으며 교육전반에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상상력, 언어표현력, 창의력 사고가 길러지고 효율적인 공동체 훈련을 지도할 수 있고 경청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엄마손 인형극의 제작과정은 사전미팅회의-인형극 대본 연습-인형제작·소품제작-인형극 녹음·인형조각연습-인형극 본 공연-인형극 총 평가 순으로 진

관인어린이집에서 이처럼 엄마손 인형극이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김 원장의 관심과 강연 순 엄마손 인형극회 회장의 노력과 김민선 지도교사의 전문성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낸 결과라고 알려졌다.

관인어린이집은 1999년2월4일 개원해 시설이 하나둘씩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포천시가 보수적인 면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 원장은 앞으로 심각한 문



행된다. 이 과정에서 인형극 대본은 김 원장이 직접 작성하며 인형극에 필요한 인형이나 소품은 인형극회 회원들이 토요일을 이용해 제작하는 등 인형극 공연 전 과정을 직접 준비하고 구성하고 있다.

엄마손 인형극 프로그램은 2007년 경기도 보육시설 우수프로그램 발굴·보급사업에 참가해 우수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에서 3개 프로그램을 우수프로그램으로 정했는데 관인어린이집의 엄마손 인형극 프로그램이 우수프로그램으로 채택된 것이다.

엄마손 인형극은 1년에 4회 어린이집에서 공연을 하고 12월에는 영부면 소재 보화보육원에서 1회 공연을 실시하여 그곳 어린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제로 떠오르게 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인형극도 환경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포천신문이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도 관심을 갖고 보도해줄 것과 현직적으로 수고하고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가 다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는 1개반을 줄여야 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관인면 지역에서 아이들에게 큰 꿈과 희망을 주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관인어린이집의 엄마손 인형극과 신뢰할 수 있는 교사상을 정립을 위한 노력이 우리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아파트 드레스룸 · 주방 하드웨어부품 생산

미래형 최첨단 제품만을 연구 · 생산하는 동성사



▲아일랜드형 전동식 배면형 식기거치대 (상품명 오르내리미)



대표이사 윤이용



▲전동식 식기거치대(상품명 오르내리미)

큰 면

성 실

창 조